

2014년 5월 12일 월요일

오늘은 평범한 날이지만 특별한 날이다.

한 달 전쯤, 난 20년 가까이 꿈꿔왔던 교사의 길을 포기했다. 주변 사람들은 알 수 없었다.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 말이다. 남들 눈에는 '공부'자체가 힘들어서 그만 둔 것처럼 보일 뿐, 사정을 들으려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힘들었었다. 그리고 너무나도 외로웠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활....그나마 모교에서 했던 공익 근무요원 생활이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시기긴 했을 정도니...(물론 나름의 고충도 있었지만..) 나의 고민은 제대로 들어주지 않던 사람들을 믿지 못했고 스스로 끄끙거리다보니 엄청나게 힘들었던 것 같다. 그 안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도 없지 않았다.

단순하긴 했다. 임용고시 합격만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나에겐 그게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단순하지 않다'고 느낀 것들을 이야기해도 돌아오는 것은 '단순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힘들고 외로웠다

남들의 시선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았던 것 같다. 장남이고 장손이고 착한 아들이었고 착한 친구, 착한 형이었다. 아니 그러려고 사력을 다했다. 내 자신을 억지로 부여잡고 끌고 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교사란 직업.....분명 처음에는 너무하고 싶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나도 모르게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생겼었던 거 같다. 그것을 부정하고 있었던 것 같다. 꿈을 포기한 놈이란 소리를 들을까봐, 새로운 길이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라는 생각에...억지로 내 자신의 멍살을 부여잡고 끌고 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랬던 내가 차츰 변해가고 있다.

한 달이 좀 넘도록 받고 있는 심리치료를 오늘도 다녀왔다. 날이 갈수록 편해진다. 내 자신을 알아가는 거 같아서 나름 뿌듯하기도 하다. 내 자신을 알아갈수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남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그전과 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행을 가고 싶었다. 그래서 내일 부산으로 떠난다. 물론 아는 동생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아마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길 것 같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혼자 어디 간다는 거....몇 년 동안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다. 변하고 있는 것 같다. 변할 것이다. 이번 여행을 기점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부를 그만두고 내 자신을 찾아가는 심리치료를 받고 변하기 위한 새로운 기점을 만들기 위해 떠나는 여행....하루하루가 평범하지만 특별한 날이다.

그래서.....오늘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날이다.